

연극촌 회원들, 지역 배우들과 첫 정기모임 현장

불켜진 객석에서 연극사랑 '도란도란'

조명 아래 배우들의 열기가 뿜어져 나오던 소극장 씨디아트홀에서 지난 25일 밤에는 조금 색다른 행사가 열렸다.



25일 씨디아트홀에서 열린 인터넷 카페 '연극촌' 카페 오프라인 모임에 참가한 회원과 배우들이 행사 후 함께 포즈를 취했다.

여하는 편인데 특히 연극에 관심이 많아요. 소극장 공연은 참 매력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매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쉽죠. 될 수 있으면 한달에 한 번씩은 '광주 연극'을 꼭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지유'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자옥(35)씨는 "오늘 행사도 첫번째 정기 모임이라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좋은 공연이 있으면 서울로 원정 관람도 나서는 박진(30)씨는 "지역 극단의 작품은 홍보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쉬운데 이번 모임을 통해 앞으로 지역 작품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배우·관객 한자리서 지역 연극 발전 토론회 서포터즈 역할 다짐

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지역 극단의 상황이 어렵다 보니 젊은 배우들이 별로 없어 아쉽죠.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연극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데 광주 연극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씨는 연극 '맥베드'를 보고 연극에 빠져든 사연부터 다음달 공연 예정인 연극 '외지는 잘못 없다'를 위해 무술 연습을 하고 있다는 근황 등을 소개하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

다. 또 메이크업과 무대 분장을 공부하고 있는 김예슬(21)씨 역시 배우들과의 만남이 색달랐다고 말했다.

"제가 배우다 보니 지역 공연 정보를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공연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카페를 열게 됐어요. 솔직히 서울의 유명 공연들은 TV 스포츠 광고를 하는 등 홍보 방법이 다양하지만 지역 극단은 어렵죠. 연극촌을 통해 인연을 맺은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세요."(박영진)

이날 정모는 인근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됐고, 광주 연극계는 언제나 함께 할 소중한 '서포터즈'를 얻었다. 연극촌(cafe.daum.net/drama2003)은 특별한 회원 가입 없이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할인 이벤트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작품을 볼 수 있다.

/김미기자 mekim@kwangju.co.kr

한여름 미술장터 달구는 광주 작가들

광주지역 작가들이 한여름 미술장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양화가 최재영씨가 오는 31~8월3일 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8 골든아이 아트 페어'에 참가한다. 최씨는 이번 아트페어에 지난 일 년 동안 그린 신작 중심으로 11점을 출품한다.

최씨는 인간의 욕망과 위선을 조롱하는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린 아이 시리즈를 주로 그리고 있다. 동화적인 아이들의 표정에 인형의 눈동자를 접목시켜 냉소적이지만 현실에 대한 따뜻한 반성을 담아 낸 작품이다.



최재영 작 'performance'

최재영 '골든아이 아트페어' 참가 강남구 '코리아 아트 씬머...' 출품 이남 '뉴욕 크리스티 경매' 초대

오프온선이 주최하는 이번 아트페어는 작가 중심의 행사다. 20대에서 9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된 작가 200여 명이 작가·화랑별 부스를 통해 총 4천여 점을 전시·판매하는 대형 미술 장터이다.

최씨는 조선대 회화과 출신으로 영국 슬레이드 예술대학과 워싱턴 예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최근 아이 시리즈로 주목받는 작가이다.

물 안개가 낀 새벽 강에 피어난 들꽃을 화폭에 담고 있는 강남구씨도 31~8월4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코리아 아트 씬머 페스티벌'에 출품한다. 강씨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 배경을 흐릿하게 찍는 사진 효과인 '아웃 포커싱'을 빌려와 물안개 낀 새벽강은 흐리게 표현한 뒤 들꽃은 도드라지게 그린 작품들을 선보인다.

최대한 살린 원근감으로 보는 사람이 새벽강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드는 작품 10점을 선별해 출품했다.

경향전람이 주최하는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 40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부스별 도슨트들이 관

람객과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설명해주는 등 전시와 아트페어가 결합된 행사이다.

강씨는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뒤 대한민국 청년 비엔날레, 한국회화조형특별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미디어 아트 작가 이남씨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신-초충도' '앤디워홀 덴마크여왕연구' 등 2점을 출품한다. '신-초충도'는 신사임당의 동명의 그림을 디지털 기술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재해석했고, '앤디워홀 덴마크여왕연구'는 앤디워홀의 작품 덴마크여왕을 디지털 프린트 기법(Diasec)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출신으로 10여 년째 독특한 영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스미소니언 미술관 개관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작품 공모

어린이바다학교 운영

8월18~31일, 수상자 해외 전시 지원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지역 작가들을 발굴해 지원금을 주고 개인전을 열어주는 창작 지원 프로그램인 '광주신세계미술제'가 8월18~31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대상자는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타지역에서 창작하고 있는 이 지역 출신 작가다.

자유롭게 주제를 정한 뒤 전시 기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장르 구분없는 통괄공모이며, 제출자료는 응모 원서, 기존 작품 사진, 기존 작업에 대한 작품문 등으로 자료를 CD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심사한 후 오는 10월에 수상자를 발표하며, 대상 수상자는 700만원, 장려상 3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 수상자 전원은 2009년 이후 광주신세계의 지원을 받아 개별초대전을 열 수 있으며, 해외 전시도 지원받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손봉체, 박수만, 이이남, 이정록씨 등을 배출했다. 문의는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목포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광장 상낙준)은 오는 8월4~7일까지 진도 청소년 수련원에서 '제14기 어린이바다학교'를 운영한다.

해양 유물에 대한 교육과 수상 훈련 등 체험행사가 풍성하고 무동력 고무배 타기, 모형 배 만들기, 목간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곁들인다. 참가자들은 대상으로 문화재 그림그리기 행사를 갖고 입상자들에게는 상품권 등을 시상한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만원, 문의 061-270-205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은편칼럼' 송민석 교장 '행복수업노트' 출간



본사 독자 칼럼인 '은편칼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남다른 필력을 자랑해 온 송민석(62·사진) 여천고등학교교장이 교육 신념과 보람, 행복, 지혜 등을 주제로 쓴 글을 모아 '행복수업노트'(다림)를 펴냈다.

책에는 32년간 교직에 몸담아온 송 교장의 교육철학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 인간관계, 건강 등 삶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다.

책은 '꿈을 이루는 법칙', '현명한 삶, 행복한 삶', '내일을 여는 교육 단상' 등 총 5부로 구성

됐다. 1장부터 4장에는 송 교장이 윤리교사로 '행복수업'을 진행하면서 모아왔던 각종 자료와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글들이 실렸으며, 5장에는 송 교장이 각종 일간지에 기고했던 교육 관련 글들이 수록됐다.

이밖에 집중력을 높이는 비법, 명문대 학생들이 말하는 공부 비법 등 효과적인 학습방법 뿐만 아니라 좋은 부모 되기, 자녀와의 대화법 등도 함께 실렸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콘텐츠산업 지원 가이드북'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콘텐츠산업 지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부와 중소기업의 기업지원 정책을 비롯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의 지원정책 가운데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을 망라해 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제작·기술개발·금융·세계·수출 등 정부의 분야별 지원정책과 340개에 이르는 세부사업이 568쪽 분량에 담겨 있다. 가이드북은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무료 배포하며, 내용은 문화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혜뉴스

Advertisement for 'Happy Time 영화안내' (Happy Time Movie Guide) featuring various cinema listings such as 메가박스, 엔터시네마, 콜롬버스시네마, 씨너스전대, 하미시네마, and 제일시네마. Each listing includes movie titles, showtimes, and contact information.